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거듭나는 이야기를 보면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로부터 빛이 비취고 음성이 들리며 눈이 멀었다 눈이 떠지는 경험은 거듭남에 있어 절대로 보편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거듭남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거듭남은 사람이 이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테반 집사를 죽이라고 명한 것도 바울이었고(행 8:1), 집마다 다니며 성도들을 감옥으로 끌고 간 사람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행 8:3)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어 보이는 사울에게 빛을 비취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바울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둘째, 거듭남의 현장에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행복하며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비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상대방에 대한 행복, 또는 경외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박사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져 아기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참된 메시아에게 자신이 반역했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행 26:19-20에서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다메섹 사건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다메섹 거듭남의 사건 이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과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듭남은 참된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그곳에서 사울이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후에 시내로 들어가라 명하시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왜 사울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하시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기 전,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가 비로소 눈을 뜰 수 있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되고, 마실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회개함을 동반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꿉니다. 거듭난 자들로서, 이 전의 삶과는 다른,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7/10(월)	7/11(화)	7/12(수)	7/13(목)	7/14(금)	7/15(토)	7/16(주일)
시116-119	시120-130	시131-136	시137-143	시144-149	시150, 잠1-4	잠5-8

QT

이번 주 QT 말씀

7/10(월)	7/11(화)	7/12(수)	7/13(목)	7/14(금)	7/15(토)	7/16(주일)
행9:10-22	행9:23-31	행9:32-43	행10:1-16	행10:17-33	행10:34-48	행11:1-18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과 크리스천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은 어떠했나요?
3. 나는 언제 거듭남을 경험했나요?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나요?
4.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내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나의 정체성과 사명에 어떠한 변화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